



「가자 모놀로그」(2010)

한국어 대본



팔레스타인 아슈타르 극장

차례

1. 아흐마드 루지 (1993 년생, 웨흐다 대로)
2. 아흐마드 타하 (1996 년생, 다라지)
3. 아슈라프 소시 (1994 년생, 웨흐다 대로)
4. 알라 하자지 (1996 년생, 슈자이야/몬타르)
 5. 아mani 쇼라파 (1992 년생, 리말)
6. 암자드 아부야신 (1993 년생, 샤티 캠프)
7. 아나스 아부예이타 (1995 년생, 셰이흐 라드완)
 8. 에하브 라얀 (1994 년생, 사프타위 대로)
 9. 타메르 나젬 (1993 년생, 셰이흐 라드완)
 10. 타이마 오카샤 (1997 년생, 투파)
 11. 라완드 자루르 (1997 년생, 다라지)
 12. 림 아파나 (1996 년생, 사프타위 대로)
 13. 리마 사디 (1995 년생, 셰이흐 라드완)
 14. 사미 제르자위 (1994 년생, 투파)
15. 수주드 아부후세인 (1995 년생, 셰이흐 라드완)
 16. 수하 맘루크 (1995 년생, 투파)

17. 알리 하사니 (1995 년생, 사프타위 대로)
18. 파티마 아부하셈 (1996 년생, 잘라 대로)
19. 파티마 알라 (1996 년생, 셰이흐 라드완)
20. 무함마드 옴라니 (1995 년생, 슈자이야/몬타르)
21. 무함마드 카셈 (1995 년생, 사프타위 대로)
 22. 마흐무드 아부샤반 (1996 년생, 리말)
 23. 마흐무드 발라위 (1995 년생, 샤티 캠프)
 24. 마흐무드 투르크 (1994 년생, 잘라 대로)
25. 마흐무드 아파나 (1995 년생, 사프타위 대로)
26. 마흐무드 나젬 (1994 년생, 셰이흐 라드완)
 27. 헤바 다우드 (1995 년생, 미나)
 28. 위암 디에리 (1997 년생, 사브라)
 29. 야스민 자루르 (1996 년생, 다라지)
30. 야스민 아부아메르 (1996 년생, 슈자이야)
31. 야스민 카트베흐 (1996 년생, 셰이흐 라드완)

Credits 한국어 대본 번역 참여자 (총 15 명)

1. 아흐마드 루지 (1993 년생, 웨흐다 대로)

번역: 김진아

전쟁 전까지, 저는 가자를 두 번째 엄마처럼 여기고는 했어요. 가자의 땅은 제가 누울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이었고, 가자의 하늘은 제 꿈이었어요. 아무 제약 없는 꿈이요. 가자의 바다는 제 걱정을 다 씻어 주고는 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이곳을 망명지처럼 느껴요. 더이상 이곳을 제 꿈의 도시로 여기지 못하게 되었어요.

전쟁 중에 우리 동네의 주(主) 전봇대가 거대한 로켓에 맞았어요. 삼촌들이 모두 우리 집에 같이 있을 때 정전이 되었는데 다행히 근처에 전기가 통하는 선이 하나 있었어요. 이웃집에 가서 연결선을 빌려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죠. 전선을 훔고 우리 집에 불이 들어오자, 이웃이 연결선을 돌려받겠다고 왔어요. 큰 싸움이 일어났지요.

전쟁 중에는 다들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전쟁 속에서 밀가루를 스무 포대씩 갖고 가스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빵 한 조각도 없었는데요. 그들이 이웃에게 빵을 조금 부탁해도 누구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자기 것들을 단단히 지키고 그 무엇도 남에게 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마음씨 좋고 서로 돕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우린 이웃에게 연결선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 연결선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전 처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못될 수 있는지 알았어요. 우린 바로 벌을 받았답니다. 옆집이 폭파되어 두 조각이 났고, 그 절반이 우리 집으로 쓰러졌어요. 우린 연결선과 전기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시립 공원 옆의 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삼촌의 집은 정부 건물 근처였고,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그 건물이 폭격 당할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삼촌 집은 완전히 사라질 판이었어요! 우린 뭘 어떻게 할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른 채 그저 앉아 있었어요. 아빠는 계속 우리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걱정 마. 겁 먹지 말고. 별 일 없을 거야.” 우린 자정까지 그렇게 머물렀어요. 로켓 폭격 소리가 계속되었고, 아빠는 계속 걱정 말고 겁먹지 말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 와!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빠는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 아빠와 같이 몸을 떨었어요. 엄마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삼촌도 아주 불안해 보였어요. 아무튼 우린 삼촌네 가족과 다 같이 한밤중에 도망쳐 나왔어요.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땐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대체 그날 어디서 어떻게 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정부 건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였어요. 그 사이 이웃이 전기 연결선을 가져갔고, 그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동안 우린 어둠 속에서 밤을 보냈어요. 전 그 사람이 연결선을 찾아간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아빠에겐 연결선 콤플렉스가 생겼어요. 아빠는 전기 케이블 세 개, 가스 통 여섯 개, 전열 팬 두 개, 네온등 스무 개, 양초 스무 팩, 통조림 여섯 팩, 손전등 여섯 개, 배터리 두 박스를 샀어요. 우린 전쟁 속을 살고 있으니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신중해야만 해요.

나는 다른 누구보다 심각한 콤플렉스에 빠졌어요. 전쟁 전의 저는 아주 너그러웠거나, 이것저것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언젠가 내가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을 찾을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전쟁 이후로는 모든 물품을 쓰는 데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서 차에 설탕을 거의 안 넣기 시작했어요. 빵을 조각내고도 다 먹지 못했어요.

식욕을 잃고 모든 것을 굉장히 아끼기 시작했지요.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흐메드는 항상 쌈짓돈을 챙겨놓는구나.” …물론이요. 또 전쟁이 시작될 때를 대비해서 아껴 둬야 하니까요!

내가 마치 열 명의 아이와 결혼을 한 것만 같아요. 삶이 두렵고… 모든 것이… 모든 사소한 것이 두렵고, 항상 걱정이 돼요. 가자의 모든 것이 모래 늪 위에 놓인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광기가 즉시 이곳에서 벌어질 수 있고, 많은 악몽이 현실이 되기도 했어요. 이곳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상한 도시예요.

중국 인구가 이제 세계 인구의 3 분의 1 이라는데, 중국 사람들이 모두 일해도 가자에 충분한 신발과 셔츠를 만들지 못할 거예요. 가자는 모든 것을 소모하고, 세계가 가자를 공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해요. 사실 가자에는 빈곤이 가득하고, 쓰레기에서 음식을 찾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비극은 모든 것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비극은 그것을 멈출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모든 구덩이에는 바닥이 있지만 가자에는 바닥이 없어요.

제 꿈은 단 하루를 자유롭게 살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큰 꿈이 아닐 텐데 이루기 어렵네요.

제 꿈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정신 분열을 안기고 있는 팔레스타인 분열을 끝내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하는 데에 지쳤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린 간청할 수밖에 없고, 신께서 답해 주시겠죠. 여러분에게도요. 안녕히!

2. 아흐마드 타하 (1996 년생, 다라지)

번역: 이여로

난 가자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도시로 평생 생각해 왔다. 그런데 한번은, 아버지와 함께 자파에 갔다가 머리가 핑 돈 채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나는 가자가 바늘구멍만 하고 아름답지도 않다고 생각하게 됐고, 가자는 점점 더 좁아지고 나빠지고만 있다. 누구도 숨릴 수 없고, 누구도 여행이 허가되지 않는다.

가자의 거리를 걸을 때마다 숨이 막혔다. 자파의 풍경이 마음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는 어디에 있지? 우리는 이 세계의 나머지로 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게 내가 항상 바닷가에 있는 이유다. 거긴 가자 지구가 아닌 것 같아서. 거둬 내가 내 이름을 모래에 쓴다. 그리고 파도가 다가와 그것을 지운다.

전쟁 이전에 나는 전기 공학자가 되고 싶었다. 전쟁 이후로 나는 학교에 가는 게 싫어졌다. 난 평생 중요한 사람은 못될 것 같다는 생각만 든다. 설령 된다 해도, 그래서 뭐? 이 도시에서는 그게 그건걸. 쓰레기 더미 위에 핀 가장 예쁜 꽃이 된들 뭐해?

폭격이 시작되자 가자의 모든 학교는 하교 조치됐다. 우리는 예외였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떠나게 두지 않았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순식간에 학교 운동장으로 달려나갔다. 이상한 건 내가 다니던 자이투네 학교가 제일 먼저 폭격을 당한 여권부 근방이라는 거다. 첫 공습과 함께 날아온 로켓탄 조각이 학교에서 가장 큰 나무를 사탕수수 쪼개듯 두 쪽 냈다. 그걸 보곤 누구도 학교에 남지 않았다. 학생, 교사, 그리고 교장까지, 우리는 살기 위해 흩어졌다.

내가 전쟁에서 보게 될 순교자는 그 나무가 유일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보니 길거리에 순교자 네 사람이 놓여 있었다. 내 작별 인사를 기다린 것처럼. 작별 인사를 마치자, 한집안에서 나온 순교자 세 명이 거리에 도착했다... 그들을 묻고 돌아서자, 길 아래 이웃집 두 채가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폭격을 받았고 집은 지상에서 닦여 나갔다. 모두 죽었다. 어린 소녀들의 죽음이 가장 슬펐다.

이 전쟁이 나만 노리고 있다고 느꼈다. 가자 지구의 모든 사람 중에서. 하루 종일 순교자들을 보았다.

알시파 병원에서 절대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다. 수백 구의 시신이 한데 쌓여 있었다. 살이, 피가, 뼈가 서로 엉겨 붙고 녹은 채.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린이인지 조차 알 수 없었다. 침대에 살 더미가 쌓여 있고, 많은 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저희 남편과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소리지르고 울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아침까지 공포로 깨어 있었다. 그날이 잠들지 못한 유일한 밤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이날 이때까지도 그 사람들이 눈앞에 보인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3. 아슈라프 소시 (1994 년생, 웨흐다 대로)

번역: 전체 크레딧을 선택한 참여자

동네 아이들 모두 형을 좋아했어요. 그는 산들바람보다도 차분했고, 아버지에게 받은 용돈을 저에게 건네주곤 했어요.

다들 형을 사랑했어요. 친구들이 찾아오면 형은 친구들과 같이 학교에 갔어요. 세상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나비 떼처럼 다 같이 땅을 날아오를 듯 내달렸죠.

이스라엘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헬리콥터 소리가 먹잇감을 덮치려는 괴물 같았어요.

현상 수배 된 사람들이 모는 차량이 야르무크 거리를 달리고 있었고, 나비들이 그 차 근처에 다가갔어요. 나비들은 그 차가 자신들을 태워 버릴 불이 될 줄 전혀 몰랐죠.

로켓탄이 차에 떨어졌어요. 타레크 형의 몸이 공중으로 5 미터 치솟았어요. 차보다도 더 높이 솟았다가 내려오더니 멀쩡히 걸었어요. 다친 데가 없었죠. 구급차가 와서 시신들을 싣고 갔어요. 사람들이 형 보고도 구급차에 타라 했지만 형은 “저는 다친 데가 없어요.” 말하고는 다시 학교로 향했어요.

그렇게 100 미터쯤 걸어가던 형이 가슴에 손을 얹고 순교자처럼 쓰러졌어요. 저는 길에서 학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여자 형제가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 봤지만 형이 보이질 않아 그냥 학교에 갔어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삼촌들이 찾아와 오늘부터 학교를 사흘 쉬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차에 탔는데, 삼촌이 기사에게 뉴스를 끄라고 했어요. 저는 이상하단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삼촌은 뉴스를 좋아하시거든요. 집에 도착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아버지가 우는 건 그날 처음 봤어요. 아버지는 형 사진을 들고 계셨죠. 저는 물었어요. “아버지, 형이 순교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신이여, 그의 영혼에 자비를 베푸소서.”

구급차가 타레크 형을 병원에서 데려왔고, 우리 모두 작별 인사를 하러 달려갔어요. 형은 그날 들고 나갔던 책을 손에 쥐고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묘지에 같이 가는 걸 만류하셨지만, 저는 기어이 차에 탔어요. 묘지에 가 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무덤 앞에서 파티하 기도문을 읽었어요… 석 달 동안 매일같이 그 무덤 앞에 찾아가 형에게 말을 걸었어요.

밤이 되면 저는 방에 있는 형 사진을 봐요. 사진에 ‘영웅-순교자 타레크’라 쓰여 있어요. 형이 순교한 뒤로 저는 침대에서 혼자 자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전에는 한 침대에서 발을 서로의 머리맡에 두고 잤거든요. 어떨 땐 팔다리가 다 엉킨 것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 침대 하나를 혼자 다 쓰죠.

형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4. 알라 하자지 (1996 년생, 슈자이야/몬타르)

번역: 전체 크레딧을 선택한 참여자

머리 스카프가 하늘에 날아갈 때까지 거리를 달리고, 달리고, 달리다 저도 머리 스카프를 따라 날아가고 싶어요.

가끔 완전히 미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이런 얘기는 처음 해 봐요. 제가 평소에 하는 그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하기 두려운 그런 얘기인지도요...

제 부모님은 왜 저를 이렇게 대할까요? 제 또래 여자 친구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 개들이 부러워요. 저도 개들처럼 자유롭고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 한 척이 저를 먼 섬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것, 특히 전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느 해안가에 던져 주면 좋겠어요.

전쟁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전쟁이 통틀어 한 무더기였으면 엄마가 또 다른 한 무더기였어요. 엄마가 왜 저도 본 장면을 자꾸 입에 올려야 했던 건지, 저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엄마와 둘이 발코니에 서 있는데 이웃집에 폭탄이 떨어졌고 이웃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우리는 집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시신이 어떻게 길거리로 날아가는지 봤어요. 그 뒤 그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상상이 되실 테죠.

그렇게 그 장면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엄마가 이웃집이 어떻게 폭격됐는지, 어떻게 이웃이 집에서 날아갔는지, 제가 옆에 내내 서 있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전쟁 내내 엄마의 이야기는 계속됐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어디선가 폭격이나 파괴가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 뉴스 보도는 15 분만에 끝나는데 엄마는 두 시간에 걸쳐 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같이 뉴스를 안 본 것처럼. 점점 저도 확신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엄마 옆에 있었던 게 맞나? 아닌가? 자꾸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 맹세코 거기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분명히 엄마 옆에 있었어요!

어쨌든 다행인 건 엄마가 이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도 엄마 얘기를 듣느라고 머리가 지끈거렸을걸요.

5. 아마니 쇼라파 (1992 년생, 리말)

번역: 이여로

가자는 사람들을 태우고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비행기로,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에 착륙한다. 다만 언제 착륙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사람들은 내 인생의 두 배는 되는 시간을 그렇게 허공에 뜬 채로 지내야 할지 모른다.

이곳은 하루하루가 똑같다. 새로운 것이 없다. 가장 단순한 사실은 가자에서는 꿈과 희망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나처럼 노래하고 연기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예술가가 되는 게 꿈이라면. 가자의 유일한 음악은 죽음의 음악, 상처 위에서 춤추는 음악뿐이다.

내가 외국으로 나가 연출 공부를 하면, 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볼까? 졸업을 하고 나면, 이 국가는 지금과 같을까, 지금보다 나빠져 있을까? 모든 것이 뿌옇고 불분명하다. 페라스 시장에서 금요일에 보게 되는 사람들 얼굴처럼.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날처럼...

첫 공습은 여권부에 가해졌다. 나는 시험을 보고 친구 하나와 교실을 나온 참이었다. 그날은 1학기 시험 기간의 첫날이었다. 우리는 교문 앞에 앉아 집에 같이 갈 친구들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폭발이 연달아 일어났다... 난 충격에 빠졌고 곧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친구와 도망치면서도 정말 무서웠다...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며 자신의 얼굴을 연신 때리는 여자들을 보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다리가 더이상 버텨줄 것 같지 않았고,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러다 기절을 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친구가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니, 제발 일어나 봐!"

깨어나서는 울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어느 언니가 나를 도와 집까지 같이 가 줬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날 끌어안았다. 너무 피곤했지만 그 순간에는 설 수 있었다. 날 보듬어 줄 품이 필요했다. 곧 죽고 말 거라고 느끼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

전쟁은 가자의 밤과 낮을 뒤덮는 검은 유령이었다. 사람에, 땅에, 하늘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자신의 지옥을 강요했다.

전쟁 이후 나는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다. 크고 거친 파도가 내 영혼을 덮친 듯했다. 그 파도에서 절대 헤어 나오지 못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렇게 극장에 와 모놀로그를 준비하는 동안 구원의 손이 다가오는 걸 느꼈다. 극장이 구멍 튜브가 되어 나를 파도에서 꺼내주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편안함을 오늘 느낀다... 그리고 항상 이 상태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란다.

6. 암자드 아부야신 (1993 년생, 샤틀리 캠프)

번역: 전체 크레딧을 선택한 참여자

전쟁이 터지기 전날까지만 해도, 가자는 저에게 즐거움이고 행복이었어요… 여행도 다니고 바다에도 가고… 삶이 행복한 것 같았고… 생각이니 고민이랄 것도 없었죠.

꿈은 하나 있었어요. 가자에서 예술과 스포츠가 번창하는 거요. 이 둘만 빼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괜찮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술도, 스포츠도, 건강도 안전도, 모두 같았어요.

가자는 더는 제 꿈의 도시가 아니게 되었어요. 제 꿈은 배우가 되는 거니까요. 가자에서 여남은 명이나 겨우 보는 배우가 될 순 없잖아요? 국경 봉쇄가 풀리기만 기다리면서?

제 손에 달린 일이었다면 전쟁을, 죽음을, 폭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뭐든 했을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침묵하고 말도 안 되게 참고 견디는 게 너무 끔찍해요. 내일이라도 온 가자가 떨치고 일어나 거리를 행진하며 이렇게 외치기를 바라요. “이제 그마아아아아아아안!!!!”

전쟁이 시작되던 땐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공기가 뭔가 이상해지고 하늘이 새빨개졌어요… 갑자기 비행기 소리가 들렸는데, 그런 소리는 생전 처음 들어 봤어요. 다들 겁에 질려 땅바닥에 엎드린 채 죽기만 기다렸죠. 이윽고 바로 근처에서 엄청난 폭음이 들렸어요.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없이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우리에게 폭탄을 날린 건 아니었어요... 근처에 현상수배 된 사람들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거기다 터뜨린 거였죠. 그래도 계속 몸을 숙이고 다음 미사일을 기다렸어요. 전 온통 형들 생각뿐이었어요. 둘 다 저랑 같이 있었는데 저보다 형들이 더 걱정됐거든요. 형들도 저처럼 저를, 그리고 서로를 더 걱정했던 것 같아요.

옷가지를 챙겨 들고 운동장을 도망쳐 나왔어요. 달리다가 포탄 파편을 밟았어요. 다리에 박힌 걸 빼고 길가로 나왔더니 그 사람들이 보였어요. 순교자 세 사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한 사람은 다리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저는 그 사람을 바라봤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저에게 뭐라고 소리를 쳤는데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쪽으로 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다는 말인 걸 알았어요.

죽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그 순간에 알았어요. 순교자가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멍하니 보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쓰러져 있었어요. 집까지 달렸어요.

전쟁은 지나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쟁을 살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아무 거랑도 아무 상관 없는 사람들이 늘 희생자가 되죠. 어느 나라에서 지진이 나든 홍수가 나든,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돼요. 마치 온 세상이 무슨 음모라도 꾸미고 있는 것처럼요.

전쟁이 난 후론 너 나 할 것 없이 서로서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기만하고.

지위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높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은 눈도 깜짝 않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학살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아픈 사람은 더 아파져요.

아무리 좋은 말도 더는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제아무리 대단한 사람의 제아무리 대단한 연설이라도 다 개소리예요. 세상 어떤 연설도 차게 식은 사람이나 전쟁이 나서 천막에서 자는 사람을 데워 주진 못해요.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죠. 온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금도 연설이나 하고 있다니!

7. 아나스 아부에이타 (1995 년생, 세이흐 라드완)

번역: 전체 크레딧을 선택한 참여자

어렸을 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온통 가시밭길이에요. 전에도 어른은 물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도 없었지만 장벽이 생긴 후론 모든 게 더 나빠졌어요.

제가 총리였다면 체육청소년부에 제일 신경 썼을 거예요. 온갖 군데에, 특히 학교에 운동장을 만들었을 거예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게, 학교 경비원에게 쫓겨나지 않게 했을 거예요. 운동부 회비는 없애고 공원은 전부 보존했을 거예요.

하지만 꿈이니 안심이니 희망이니 미래니 하는 것들은, 작디 작은 꿈마저 숨통을 끊어버리는 이곳에선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전 골키퍼였어요. 모함메드라는 친구는 늘 골을 넣겠다고 덤볐지만 전 한 골도 안 먹었어요.

2009 년 1 월 7 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안개가 낀 날이었어요. 집 앞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네 친구 모함메드가 순교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믿지 않았죠. 친구를 찾으러 갔어요. 죽는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웠어요.

모스크에 도착해서 평생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모함메드를 봤어요. 산산조각이 나서는 팔레스타인 국기에 싸여 있었어요. 울고 또 울었어요. 껴안을 수도 입을 맞출 수도 없어서 슬퍼하다 친구

를 안아 올렸어요. 묘지에 가서 친구를 묻고도 계속 앉아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이 세상에 나만
두고 떠나서 정말로 화가 난다고 말해 줬어요.

묘지를 나설 때쯤 엄청난 폭격이 있었어요. 죽음의 천사가 다가오는구나, 나만 홀로 두지는 않는
구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아직 살아 있네요.

8. 에하브 라얀 (1994 년생, 사프타위 대로)

번역: 미래

저는 이 세상을 처음 인지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제한된 사고를 해왔어요. 제게 삶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먹이고, 아이를 교육하고, 아이를 결혼시키고, 그런 다음 죽는 거였죠.

하지만 전쟁이 벌어진 후 저는 삶이 그보다 훨씬 고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알고 보니 우리가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 뒤로 각기 수백만 개 매듭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어른이 되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어디를 가든 딱히 할 일이 없어 자기 집 앞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만 보이니까요. 저에겐 그런 광경이 가장 두렵고 슬퍼요. 그리고 이건 가자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책임감을 느끼면서 유년기를 빼앗기는 이유이기도 해요.

엄마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에하브가 내 자식 중에 최고지.” 저는 항상 집에 머물면서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아빠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집밖으로 못 나가게 했어요. 두 시간 만에 따분해진 저는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산책했죠.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산책이었어요… 자동차들이 폭격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옆을 지나기도 두려웠고… 비행기가 다가와 제가 피할 새도 없이 폭탄을 떨어뜨릴까 봐 산책하는 내내 하늘을 올려다봤죠. 우리가 사는 사프타워 대로 동네가 공격을 받는 일은 드물었는데도 저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것에서 달아나듯 집으로 내달렸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집 안에 머물렀어요.

전쟁 후 제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전보다 가까워졌죠.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고, 나이 많은 어른들이랑 체커도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 밖에서 보냈어요. 집 안에는 한 시도 머물지를 못하겠어요. 엄마는 더이상 “에하브가 내 자식 중에 최고지”란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알게 됐어요. 전쟁 전에는 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요. 하지만 전쟁 후에는 이 도시의 공기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울기도 하며 이렇게 살아 존재하고 있고—신이 보호해 주시는 한!—삶은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9. 타메르 나젬 (1993 년생, 세이흐 라드완)

번역: 미래

가자는 성냥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든 성냥이죠.

가자에서 전쟁이 시작되자, 모든 언론이 우리를 주목했어요. 알자지라, 알아라비아, 그리고 모든 위성 채널이 가자를 주목했고, 점령군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가자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파악하느라 분주했죠. 그러다 갑자기 알자지라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속보: 모함메드 힌디 사망…」 그건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기사에 나온 모함메드는 엄마의 형제, 제 삼촌이었으니까요. 텔레비전 생중계 화면 속 비명이 곧장 저희 집 안으로 옮겨와 울려 퍼지는 광경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비명과 고함과 눈물… 그 모든 게 한데 뒤섞여 저희 집에서 거리로 옮겨갔고, 엄마는 기절했어요. 얼마 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함메드 삼촌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둘째 삼촌이 건 전화였어요. 전 세계가 그 소식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둘째 삼촌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텔레비전은 정말 끔찍한 기계예요 … 사람이 총을 맞기도 전에, 총알이 심장으로 돌진하는 와중에 벌써 사망 소식을 전해 버리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채널이 한가해요… 한가하다 못해 일거리 좀 생기게 가자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게 해 달라며 신께 기도를 드리는 지경이죠!

여하간 저희는 삼촌을 애도하며 비통하게 울기 시작했고, 삼촌을 기리고 삼촌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랫동안 계속 삼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가자에서 죽음이 일상이 되면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전쟁 후 저는 제가 죽든 살든 개의치 않게 되었어요. 전쟁을 겪은 후로는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으면서 살아요. 제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보너스라고, 언제든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 후의 제 삶은 여분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도시를 사랑하지만 이 도시가 지겹고, 여기 사람들도 지겨워요. 때로는 가자에 사는 150만 명을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가자에 새로운 건 없어요. 매일같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죠. 여행을 하고 싶어요. 매일 달라지는 풍경과 얼굴을 보고 싶어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건 전봇대예요… 언젠가 눈을 떴는데 그 전봇대가 사라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이브라힘 아버지는 슈퍼마켓 문 앞에서 있고, 콩 장수 아베드는 콩을 팔고, 아베드 아버지는 자기 집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기라도 할까 봐 문 앞에 앉아 집을 지키죠… 이브라힘 어머니는 하산 어머니와 나란히 서 있고요… 저는 택시 기사들도 다 알아요. 누가 손님을 도시로 데려가고 해변으로 데려가는지 다 알고… 이러니 영혼이 고갈되죠!

제 삶에서 유일하게 다른 단 한 시간이 연극 연습을 하러 오는 이 시간이에요. 제 일이자 사명이 된 것처럼 이 시간이 되기만 기다려요… 극장이 아니었으면 전 미쳐버렸을 거예요. 어른이 되면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좋아했지만… 그때는 어딜 찾아가든 며칠 만에 쫓겨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10. 타이마 오카샤 (1997 년생, 투파)

번역: 유수

마카로니, 무자다라, 여러 면 종류, 그리고 각양각색의 통조림 깡통들. 모로코산, 중국산, 스리랑카산, 파키스탄산, 소말리아산. 소비 기한은 신경 쓰지 않는다.

전쟁 도중에는 거리에 빈 깡통이 넘쳐났고, 이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다리를 다쳤다. 점령군이 땅과 하늘에서 우리에게 대한 전쟁을 이어 갈 동안, 우리는 음식에 대한 격렬한 전쟁을 선고한 셈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하루에 백 끼를 먹었다. 아침 6 시에 눈을 뜨자마자 다음날 아침 6 시까지 쉬지 않고 먹었다. 나는 우리 집이 별난 거려니 생각했는데 주변에 물어 보니 가자에 사는 모두가 음식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 했다.

나는 전쟁 중인 상황과 순교와 파괴의 장면들이 사람들의 식욕을 꺾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두려움, 공포, 그리고 걱정의 상태가 오히려 더 배가 고프게 만들고 더 많이 먹게 하는 것 같다. 온 가족이 한 집에 머물렀던 것이 이유였을 수도 있고 특히 여자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인 게 큰 몫을 한 것 같다. 누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경쟁이 붙었으니까. 아버지는 각양각색의 식재료를 가방 여러 개에 담아 날랐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우리가 20 일 간의 전쟁 동안 먹은 음식은 1 년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게다가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가는 오히려 더 먹어야 했다는 게 문제였다.

나의 장래 희망은 기자나 변호사, 또는 총리가 되는 것이다. 기자가 되어 내가 사랑하는 가자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을 사진에 담고 싶다. 나는 가자의 소금과 모래와 공기를 사랑하며, 다른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걸 상상할 수 없다. 변호사가 되어 도시의 빼앗기고 학대 당한 모든 사람을 변호하고 싶고, 도시의 누구도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싶다. 해결책이 거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11. 라완드 자루르 (1997 년생, 다라지)

번역: 전규연

폭격이 시작되자 선생님은 말했다. “괜찮아 애들아, 무서워 하지 마. 이건 표적 없는 사격 소리일 뿐이야.” 잠시 후 핸드폰이 울렸고, 선생님은 전화를 받더니 짧게 두 마디 내뱉었다. “순교자가 120 명이라고?”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선생님이 일렀다. “모두들 당장 집에 가렴.”

밖으로 나오자마자 잠옷이나 내복 차림으로, 혹은 맨발로 뛰어온 학부모들이 보였다. 우리는 덜컥 겁이 났다. 언니와 여동생과 계속 아빠를 기다렸지만, 아빠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먼 거리지만 우리끼리 집에 가기로 결심했다.

집에 가는 길에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을 봤다. 팔레스타인 국기로 감싼 순교자의 관을 옮기는 사람들과 깃발을 들고 우는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희한한 건 장례식 행렬에 참여한 사람이 30 명 정도 뿐이었다는 거였다. 순교자들 장례식 행렬에는 보통 수천 명이 함께하는데! 그 순간에야 나라에 정말 큰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아빠가 정말 걱정됐다. 아빠가 폭탄에 맞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제발 우릴 데리러 오지 않길 바랐다. 내가 죽을까 봐도 너무 무서웠다. 지금 죽으면 아무도 내 장례식에 오지 않을테고, 그건 정말이지 큰 재앙일 테니까!

나는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도 함께 달렸다. 마치 오늘이 최후의 날인 것처럼. 폭격 소리가 멈추질 않아 다들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달렸다. 매초 폭탄이 떨어졌고 땅이 뒤흔들렸다.

거리가 예전과 같은 거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사람들도 예전과 다른 사람들 같았다. 이상한 광경, 소리, 그리고 냄새들.

전쟁 후 내 안의 많은 것들이 변했다. 화장실에 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시작했다. 화장실에 들어간 후 몇 초 지나지 않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전쟁 내내 내가 화장실에 있는 사이 그들이 우리집에 폭탄을 떨어트릴까 봐 무서웠기 때문이다. 거기선 누구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눈치채지 못할 테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당연하니까…

또 학교에서 아침에 줄을 서는 게 너무 싫어졌다. 전쟁이 시작되던 순간에도 난 줄에 서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줄을 서야 하는 몇 분이 공포와 걱정 속에 보내는 몇 시간처럼 느껴진다. 학교도 학교대로 문제지만, 줄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나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밤마다 잠들고 싶은 욕구와 악몽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갈등한다… 잠은 내 눈꺼풀 뒤에 숨은 괴물이 되었다. 나는 그 상태로 아침까지 깨어 있다. 나는 내가 잤는지 일어났는지조차 모른다.

나는 배우가 되고 싶지만 이건 가자에 사는 이상, 그리고 여자애로서는 더더욱 이루기 어려운 꿈이다… 내 재능을 보지 못하는 건 결국 가자 사람들 손해다. 난 정말 중요한 배우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거들떠보지 않겠다면 그러라지, 난 다른 나라에 가서 연기를 할 테니까!

사실 가자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건 극장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걸 박탈 당했다. 먹을거리조차 찾기 어려운데 극장에 가는 게 가능하기는 하겠냐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당신은 알까? 나는 문화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 살고 싶다. 평화가 있고 영화관은 스무 개 있는 곳에서, 영화를 계속 보면서 상상하고 꿈꾸고 싶다.

12. 림 아파나 (1996 년생, 사프타위 대로)

번역: 호영

어렸을 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런데 자라날수록, 생각이 자랄수록 걱정도 자라났죠.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불우한 어린아이란 어떤 아이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를 가장 속상하게 하고 눈물나게 만드는 건 어린아이들의 눈물이에요. 국적이나 종교, 피부색과 상관없이, 세상에 사는 모든 아이들의 눈물요. 어른이 되면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삶에서 밀고 나갈 힘이 되는 희망이에요. 지쳐버렸고 지겹고 슬프지만요. 가자에는 더 이상 삶이 없으니까요…

어제는 학교에 앉아 있다가 비행기 소리를 들었어요. 엄청 무서웠고 학교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전쟁 기억이 나서 곧 죽게 될 것만 같았어요. 전쟁의 장면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됐을 때, 식구들이 모여 앉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께참을 거라고 위로해 주고 계셨어요. 로켓 미사일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진정됐죠.

그때 전화기가 울렸어요… 전쟁통에는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전화벨 소리에 모두 기뻐했어요.

— 여보세요?

- 네?

- 이스라엘 방위군입니다. 5 분 내로 집을 비우십시오. 그러는 게 당신들도 좋을 겁니다. 우린 경고했습니다.

저는 더이상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집 안에 있던 모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도망친 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시는 걸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버지는 저희 자매를 안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자고 저를 잡아당겼지만 저는 곰인형을 데려가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폭탄 아래에 곰돌이를 놔두고 가면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곰돌이에게 달려가 품에 꼭 끌어안고 집을 나왔어요.

우리는 다 같이 집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걸었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 5 분이 지나갈 길 기다렸어요.

그건 역사상 가장 긴 5 분이었어요. 5 분은 10 분이 되었고 우리에게 그 시간은 몇 년은 되는 세월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소용돌이 속에 있었어요. 생각과 꿈이 제 머릿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세상이 빙빙 돌았어요. 커서 의사가 되는 꿈은 아주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곰인형을 안고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했어요. 그때 전 늘 웃는 아이였거든요.

작은 아이였을 때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어린애인 채로 있고 싶어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나마 유일하게 위로가 된 건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곁에 있어준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가자는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13. 리마 사디 (1995 년생, 세이흐 라드완)

번역: 호영

우리 가족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아홉 살이었어요. 가자에 가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차에 타고 거리를 지나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도시에 있는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신호등에 차가 서니까 아이들 여럿이 구걸하거나 껌이나 비스킷을 팔러 다가왔어요. 그 때 저 스스로가 미워졌고 에미리트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죽 가자에서 살았고, 파리와 가자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해도 여길 떠나지 않을 거예요. 가자에 있는 사랑은 세상 모두와 나누기에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장소는 사람들 안에 있지 건물이나 풍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에미리트에 살 때 엄마는 늘 저에게 가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기 전부터 가자를 좋아했지만 살면서 더 좋아졌어요. 엄마가 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안전하기만 하다면 가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일 거예요.

전쟁 중에 타크와 모스크와 누르 모스크가 폭격 당했고, 그다음에는 아부엘카레에 건물도 파괴됐어요. 처음엔 다들 아부엘카레에 건물 얘기만 했어요. 우리집 바로 옆이었는데, 이스라엘 비밀요원들이 폭격을 하겠다고 위협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에게 맨 아래층으로 내려가지내라고 말했어요. 그래야 아부엘카레에 건물이 폭격당해도 우리가 다치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는 1 층으로 내려가 이스라엘군이 아부엘카레에 건물을 공격하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국 그 집이 아니라 누르 모스크에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모스크의 창문과 문과 돌덩이가 집 안에 있는 우리 위로 쏟아졌어요. 저도 많이 다쳤어요. 문이 제 머리 위로 떨어졌거든요. 당연히 다들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집도 엉망진창이 됐어요.

다음 날 우리는 가족 회의를 해 건물 꼭대기 층 집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맨 위층으로 이동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타크와 모스크가 폭격당한 거예요. 유리며 돌덩이가 꼭대기층에 있던 우리 위로 또 쏟아졌고… 그래서 다시 맨 아래층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요. 우리는 앉아서 이스라엘군이 아부엘카레에 건물을 공격하길 기다렸어요. 그날 밤엔 정말로 폭격하더라고요.

첫 번째 로켓을 발사하고 두 번째도 보냈는데 터지질 않았어요. 만약 하나 더 쏘서 폭발하지 않은 폭탄을 맞았다면, 우리 동네 전체가 폭파됐을 거예요… 그랬다면 사람들은 “여기가 아부엘 카레에 동네가 있던 자리입니다.”라고 말했겠죠.

14. 사미 제르자위 (1994 년생, 투파)

번역: 호영

하루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시간은 낮 12 시예요. 학교 시험 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될 거란 느낌이 들어요. 시험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지긋지긋해질 때까지 떠다녀요. 전 스스로에게 물어요. 이게 정상인 걸까? 아니면 내 어딘가가 잘못된 걸까?

사람들은 가자의 바다가 모든 고통을 씻어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제 고통은 바다보다도 커요. 왜냐면 바다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친구와 같이였고 수영하고 놀면서 한참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바다에 갈 수 없으니까요.

탈라티니 거리는 주유소 근처에 있는데, 기름은 모두에게 귀했고 가격도 비쌌어요. 1 리터라도 구하는 게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전쟁 중이라 사람들이 뭐든 사러 다니는 걸 두려워했거든요. 아빠가 저보고 기름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기름을 산 다음에는 주유소 근처에 사는 친구 자키네 집에 갔어요. 열흘 넘게 못 봐 친구가 엄청 보고 싶었거든요.

자키네 집에 도착해서는 재빨리 움직였어요. 아빠가 기름을 사자마자 얼른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개네 집에는 노크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자키네 아주머니는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저도 아주머니를 가족처럼 생각하니까요. 아주머니와 인사하고 자키를 껴안고 뺨에 입을 맞췄어요. 자키의 형제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금방 돌아 나왔죠.

자키네서 20 미터 정도 걸어 나온 순간… 비행기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친구네 집에 로켓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그 집이 폭격 당했다고 소리지르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뒤돌아서 자키네 집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는 걸 봤어요. 그런 걸 본 건 처음이었어요.

집으로 빨리 뛰어갔어요. 아빠가 절 보더니 네 친구가 죽었구나, 라고 했어요. 아니, 안 죽었어… 다들 저에게 자키가 죽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그게 제가 장례식에도 병원에도 묘지에도 안 간 이유예요. 자키는 죽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밤마다 자키와 이야기해요. 어… 진짜 자키는 아니고, 자키 사진하고요. 개는 저를 보러 오지도 않고 저도 개를 만나러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엄청 속상해요. 개가 죽지 않은 건 확실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오면 개를 탕하겠죠, 이렇게나 많이 보고 싶으니까요.

러시아에 사는 다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개는 늘 러시아 얘기를 해요. 러시아에 사는 게 얼마나 자유롭고 안전한지… 그 얘길 들으면 저는 살아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바다에 뛰어들어 깊게 잠수하고 잠수해서 지구 반대편 러시아로 나올 수 있었으면 하고 소원을 빌게 돼요.

15. 수주드 아부후세인 (1995 년생, 세이흐 라드완)

번역: 호영

가자에서 가장 좋은 건 사람들이 선량하고 단순하다는 점이고 가장 싫은 건 정당들의 광신주의예요. 때로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선한 사람들과 표면을 통제하는 악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느껴요. 저에게 달린 일이었다면, 저는 팔레스타인의 분단 문제를 내일 당장 해결할 거예요.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주요 지도자였던 한 사람을 죽였어요. 세계 언론이 다 이 소식을 보도했죠. 그런데 세계가 다 한 계곡에 모여 있다면 우리는 다른 계곡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제 남동생 모디와 살루마와 우리 아빠가 하마스 지도자가 있던 곳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 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전화를 천 번은 걸었는데 여느 때처럼 자왈 전화선은 잘 연결되지를 앓았어요. 그래서 마음만 더 타들어갔죠.

엄마는 아이를 빼앗긴 작은 새처럼 발코니를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라도 모디와 살루마와 아빠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한 거예요. 저는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났고 이모에게 갔어요. 이모는 저를 달래려 했어요... 그러면서 동생들과 아빠랑 통화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전 이모가 통화를 못했다는 걸 알았지만 이모는 저를 안고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그러다 다시 집에 돌아가 보니 엄마는 여전히 발코니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모디는 다섯살, 살루마는 일곱 살이었다고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제 품에서 잠들던 동생들이라 제 영혼이 개네와 연결돼 있다고 느꼈어요. 그날은 제 영혼이 몸을 빠져나갔고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제서야 가자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평소에는 늘 컴퓨터를 하느라 바빴고, 그날이 처음으로 제가 전쟁을 산 날이었어요.

한 시간이 지나자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아빠가 모디와 살루마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아빠와 모디와 살루마를 사랑하면서도, 그제야 그 세 사람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지, 제가 가족과 떨어지는 걸 얼마나 못 견디는지 처음으로 느꼈어요. 모디와 살루마를 무릎에 앉히고 처음 안아보는 것만양 뽀뽀를 해 줬어요. 엄마도 발코니에서 서성이는 걸 멈췄는데, 엄마가 아빠를 그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하고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전쟁 이후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이 세상 모든 이들을 통틀어서?

저 사람들은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거기에 맞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려 해서 이 모든게 일어나는 거라고요?

우린 물도, 전기도, 전화도, 기름도 없어요... 세상 눈에는 우리가 뭘 걸까요? 우린 인간도 아닌가요?

16. 수하 맘루크 (1995 년생, 투파)

번역: 전규연

가자가 매일같이 변하니까 내 꿈도 끊임없이 변해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다시 백 보 뒤로 돌아야 하죠.

전쟁의 첫 공격 때 나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앞에 나타나더니 물었어요. “너 어디에 사니?” 내가 대답했더니 그 사람이 날 집에 데려다 줬어요. 나는 빨리 집으로 들어가 아빠한테 물었어요. “왜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애, 다 **정상**이니 가서 공부하렴.” 엄마가 말했어요.

“시험은 취소됐어요. 전쟁이 시작됐다고요.” 내가 말했어요.

오후에 그들은 우리집 근처에 있는 정부 건물을 공격했어요. 엄마는 말했어요. “다 **정상**이라니까, 우리 이런 일들에 익숙하잖니.”

우리는 각기 몸을 사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달려갔어요. 불과 몇 분 안에 이웃의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해 집이 곧 100 명 이상으로 가득 찼지만, 엄마는 여전히 모든 게 **정상**이라고 고집했죠.

아침에 아빠는 여섯 시간 동안 줄을 서서 빵 한 봉지만을 들고 왔어요. 우리는 각자 빵 반 덩어리 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여전히 **정상**이라고 말했어요.

저녁에 부모님은 다친 사람들을 보러 병원에 가기로 했고, 나도 함께 갔어요. 병원에서 우리는 시신을 많이 봤어요. 침대마다 네 구씩, 겹쳐져 쌓여 있었어요. 그제야 엄마는 “이건 정상이야.”라고 말했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은 너무 크고, 나는 그것과 함께 자라는 게 두려워요. 나는 항상 새로운 전쟁이 벌어질 게 무서워요. 풍선 터지는 소리만 나도 겁에 질리고… 자동차 급브레이크 소리라도 들리면 소스라치게 놀라 펄쩍 뛰어요… 어린애가 소리를 지르면 나도 같이 비명을 지르고요. 매일 밤 새로운 새벽이 오길 기다리며 밤을 새는데… 아침이 밝고 보면 지난 아침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17. 알리 하사니 (1995 년생, 사프타위 대로)

번역: 정혜린

가자에서 가장 좋은 점은 가자가 다른 나라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기근, 병, 분단, 점령, 폭격, 파괴, 죽음 등 많은 문제가 널렸지만, 여긴 그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가자가 정말 좋아요. 특히 하수도와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죠. 물가도 저렴하고, 모두 행복해요. 물고기들은 건강하고 하수구에서 살지도 않고요. 난 절대로 배고픔이나 가난 혹은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 거예요. 내 친척들 절반이 심장마비로 죽었지만요… 너무 “행복”해서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비밀 하나를 말해 주고 싶어요.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한 뒤로 내내 가슴속에 간직하고 말하기를 주저했던 비밀은요… 내가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놀라겠죠. 내 꿈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인이예요. 전쟁이 터지기 전날 밤에 난 전쟁이 시작되고 우리 집이 폭격당하는 꿈을 꾸었어요. 가족 중에서 나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11 시 25 분, 가자에 공습이 시작됐어요.

전쟁에서 겪은 첫 번째 충격은 학교 선생님 중에서 가장 세고 강한 산수 선생님이 첫 순간부터 겁에 질려 책상 밑에 숨었다는 거예요. 제일 무적인 선생님이 책상 아래로 숨어 버리면…우리는 어떡해야 하나 싶었어요. 오줌을 지린 애들도 많았어요. 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날 따라 비명을 질렀죠. 난 집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죽었을 거라는 확신에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길로 집으로 도망쳐 가족들에게 당장 돌아가고 싶었지만, 집으로 가는 차를 기다리는 데만 두 시간이 걸렸고, 결국 걸어서 집으로 가야 했어요. 가는 내내 우리 집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죽어 있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 식구들은 공습에 깨지지 않도록 창문을 다 떼어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난 요즘도 집이 폭격 당할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매트리스를 세 개나 깔고 자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폭탄이 떨어져도 매트리스가 충격을 흡수하면 난 안 다칠 수 있을지 몰라요. 난 꿈꾸는 게 너무 싫는데 꿈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전쟁 전의 ‘알리’(알리는 내 이름이에요)는 전쟁 후의 ‘알리’와 다른 것 같아요. 전쟁 후의 알리는 새로운 사람이라 아직 알아가는 중이에요. 전쟁 전에 난 정치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국가 원수와 총리가 다른 것도 몰랐고 뉴스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내가 지금은 정치 분석가가 되었어요. 알자지라에서 방송되는 아침 뉴스, 12 시 뉴스, 저녁 뉴스, 오늘의 소식, 이번 주 소식 프로그램을 다 챙겨 보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죠. 정치와 뉴스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삶을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자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알고 싶기도 하고요.

18. 파티마 아부하셈 (1996 년생, 잘라 대로)

번역: 우지안

유럽에 사는 팔레스타인 아이들과 얘기할 때면 난 개들이 불쌍해요. 개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개넨 디아스포라를 느끼니까요. 그 애들은 자기 꿈을 자기 것이 아닌 땅에 심어요. 꿈은 사람들과 나라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저는 삶을, 노는 걸, 사람들을 사랑해요... 저는 언젠가 팔레스타인의 대통령이 되어서 사람들 간의 사랑과 평화를 비옥하게 하고 가슴속의 증오와 악의를, 그리고 내적 분열을 끝내고 싶어요. 이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내릴 첫 번째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대통령이 아니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은 폭우처럼 쏟아지는 폭탄과 함께 시작됐어요. 우리는 겁에 질려서 학교에서 뛰쳐나왔어요... 온 세상이 저희처럼 길거리로 나와 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아들, 누이, 그리고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모두가 하늘을 향해 머리를 치켜든 채 달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상해 보였어요. 맨발에 파자마 차림으로 달리는 사람도 봤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가까이 가니까... 와, 저 사람 우리 삼촌 아내잖아. 그 여잔 완벽한 모습이 아니면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때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확신했어요.

우리가 전쟁에 관해 이야기한 지 일 년도 넘었어요. 우리는 전쟁을 살아 내고 있고 그 삶을 매일 구체적으로 살고 있어요. TV, 핸드폰, 초인종이라면 다 전쟁을 상기시키는 것들이라 싫어요. 그거 아세요? 저 심지어 핸드폰을 버렸어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내가 혼자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보호해 주지? 그리고 가족과 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지 생각해요.

제겐 큰 꿈이 있었어요. 여배우가 되는 거요. 하지만 이 꿈은 천천히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배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연기라는 건 중요하고 제가 우리나라와 사회의 고통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데도요. 만약 첫 번째 꿈이 잘 안되면 두 번째 꿈이 있어요. 기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꿈은 내가 사랑하고 날 사랑해 주는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팔레스타인 국기가 자유롭게 나부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죽음, 파괴, 박탈이나 전쟁 없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제가 이 독백을 끝까지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19. 파티마 알라 (1996 년생, 세이흐 라드완)

번역: 이동경

가자의 물고기들은 도망갔어…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지. 그들은 바다로 오수를 방류했고, 만약 바다가 말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지. “가자와 나에게 한 일이 부끄러운 줄 알아.” 가자는 음악과 연기 대신, 총과 살인을 위한 학교가 되었어.

난 원래 겁이 많아. 바퀴벌레와 새가 무서워, 그렇게 밤낮으로 걱정을 하곤 해…

전쟁 첫날, 여자애들은 나만 빼고 다 집에 갔어. 나만 마지막까지 학교에 남았어. 몸이 너무 떨려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 그러다가 나 스스로 내 자신을 돕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 용기를 모아 비틀대며 몸을 일으켰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떨며 걷기 시작했어. 내 주위로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아무도 나를 느끼진 못했어. 로켓포 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내 마음 속 공포도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

평소에 학교에서 우리집까지 가는 데 30 분쯤 걸리는데, 그날은 무서워서 15 분 만에 도착했어. 내 평생 가장 공포스런 시간이었지… 매 순간 죽을 것만 같았어. 사람들로 길이 꽉 찼는데도 그렇게나 끔찍한 외로움을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집에 도착해서는 창가에 서 있었어. 로켓탄이 근처에 떨어졌고, 몸이 땅에서 붕 뜨면서 난 뒤로 나뒹굴었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창가에 서 있을 수 없게 됐어. 창문 없는 안쪽 방에서 자기 시작했지.

지금까지도 여전히 겁이 나는 것 같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척해.

20. 무함마드 옴라니 (1995 년생, 슈자이야/몬타르)

번역: 민경

가자, 뜨거운 무기, 그리고 지옥의 불. 경악, 공포, 죽음, 파괴,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구역은 “안전” 했다. 점령군은 가자를 공격할 때마다 늘 우리를 가장 먼저 쳤는데, 이번엔 우리 구역에 흥미를 잃고 좀 변화를 주고 싶었던 모양이니 우리가 운이 좋았다.

나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지켜보곤 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을 떠나 국경을 향해 달아나는 것을. 짐을 짊어지고,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가는 것을. 어떤 이들은 어깨에 자식들을 태웠고, 어떤 이들은 등에 자신의 어머니를 업고 있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그건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온 가자의 사람들이 한곳에 몰려들었다. 거리가 점점 좁혀지면서 사람들은 모스크에서 달아나기 시작했고, 거리가 더 바짝 좁혀져 인파가 우리집까지 다다랐다.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뭐? 이제 우리 차례야? 근데 우리 갈 데는 있어?” 아빠는 집에 머물자며 이렇게 말했다. “집을 떠나는 사람은 존엄을 잃는단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야, 그대로 있어, 너는 남들보다 나을 게 없고 무슨 일이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야.”

나는 온종일 음식 준비에 몰두하고, 가끔씩 사촌들과 집에서 천 미터쯤 떨어진 배수관에서 물을 떠 오곤 했다. 사브리의 당나귀 수레를 갖고. 그러면 사브리와 사브리의 형제가 우리를 도우러 왔다. 가는 내내 사브리는 자기가 한 영웅적인 일을 자랑하고 자기 말(馬) 얘기와 야생에서 새총으로 새를 사냥하고 다닌 얘기를 했다. 나는 새총을 한 번도 들고 다닌 적이 없다. 무서우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좋았고, 우리 모두 두려웠지만 그런 와중에도 즐거움을 췌다. 우리는 거리에 있다는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대화를 나누었다.

낮이 지나 밤이 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밤이 걱정을 몰고 찾아왔네.” 우리는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나는 15 분 잠들었다가 세 시간을 내리 깨어 있곤 했다. 폭격이 벌어지는 마당에 어떻게 잘 수 있겠는가? 우리는 침대에 누워 우리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끔 나는 창가에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주위가 온통 연기와 불로 새빨-갈게 뒤덮여 있는 걸 보며 나 자신에게 물었다: 우리는 지옥에 사는데 나머지 세상은 어째서 평화로울 수 있을까?

21. 무함마드 카셈 (1995 년생, 사프타위 대로)

번역: 이동경

할머니랑 나는 단둘이 집에 있었어. 할머니는 우리 나라에 대한 옛날이야기를 들려 주고 계셨어. 재밌는 얘기도 있었고 슬픈 얘기도 있었는데, 그중에 할머니가 끝까지 들려 준 얘기는 없었어. 절반쯤 이야기하다 말고 꼭 화장실에 가셔야 했거든. 할머니는 인생의 절반은 방에서, 절반은 화장실에서 보내서.

그날 밤에 부모님은 10 시 30 분에 돌아와 바로 잠자리에 드셨어. 난 잠이 안 와서 침대에 누워 숙제를 하고 있었어. 별안간 먼 거리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어. 부모님 방으로 가 뉴스를 들으려고 라디오를 켜봤어. 아빠를 깨우고 말했어. “뭔가 요란하게 폭발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빠는 “조용히 하고 잠이나 자거라, 그저 무의미한 사격일 뿐이란다.”라고 말했어.

그래서 침대로 돌아갔는데 전기가 나갔어. 갑자기! 그러더니 무시무시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난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에 뒤집어썼어. 내 위로 뭔가가 떨어졌어. 온갖 힘을 다해 이불을 벗고 보니, 창문틀이었어. 이불은 유리 조각으로 가득했고, 우리집 전체가 검은 연기로 가득찼어. 이 날이 그들이 우리 바로 옆 건물의 노동 조합을 공격한 날이었어.

근데 요점은 이게 아니야. 중요한 건 시시한 일들인데 설명할 길이 없네. 첫 번째로, 세상이 불길에 휩싸였으니 우리 모두 곧 죽게 생겼나 보다고 다들 마음 졸이는데, 그 와중에 우리 할머니는 틀니를 찾고 있었어. 할머니는 당신이 죽고 나서 치아가 없는 걸 사람들이 알까 두려웠던 거야...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두 번째로, 집 전체가 연기로 가득했는데 우리 아빠는 거기서 담배를 피우지 뭐야. 마치 더 많은 연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처럼!

세 번째는, 우리가 괜찮은지 삼촌한테 확인 전화가 왔을 때야. 우리 아빠는 다들 무사해 신에게 감사하다고 했지만 집의 모든 창문이 하나만 빼고 전부 깨졌다고 말했어. 삼촌은 그 멀쩡한 창문도 깨라고 했고, 아빠는 그렇게 하셨어!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거라곤 우리 모두가 철창에서 살고 있다는 거야... 감옥... 새장 안에 갇힌 새 같아. 나오고 싶지만 포위되어 있어. 아이들은 엄마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마음은 그들을 위해 크게 울부짖는데, 아무도 듣질 않아. 누구의 마음도 누그러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신경쓰지 않아!

22. 마흐무드 아부샤반 (1996 년생, 리말)

번역: 김지수

날 미친 사람, 멍청이, 또라이라고 부를 사람은 그러라고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나도 상관 안 해요... 사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상이 아닌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못 믿는 거, 그건 정상이잖아요. 누구도 못 믿게 된 사람은 저 말고도 많아요. 정작 날 미치게 만드는 건 내가 가게의 유리창, 자동차, 경찰서, 수상한 동네, 이런 것들을 못 믿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가자 전체가 다 수상한 동네기도 하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전쟁 때 폭격을 당한 것에는 다가가기 무섭습니다.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른쪽으로 걷다보면 무서워지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해 봐도 역시나 무서워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래도 소용돌이는 계속되죠... 그럼 나는 어디로 걸어야 하나요, 도로 중앙으로?

자, 보세요. 전쟁 첫날, 나는 컴퓨터와 핸드폰 액세서리를 파는 우리 형네 가게에 있었어요. 메달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형이 나보고 다시 걸어 달라고 했어요. 메달을 걸고 있는데 로켓탄 소리가 들렸고 유리 파편이 내 위로 쏟아졌어요. 난 깨진 유리에 다쳤고 무서웠어요. 내 걱정보다도 형 때문에 더 겁이 났어요. 형도 다쳤거든요.

형은 남은 식구들을 걱정했어요. 그러면서 말했지요. “집으로 올라가서 다들 괜찮은지 확인해 봐.”

집으로 가는 계단을 오를 때는 무섭지 않았어요. 식구들이 괜찮은지 확인했는데 신께 감사하게
도 다들 무사했어요.

폭격이 된 게 어디였는지 보러 거리 위쪽으로 올라가 봤어요. 폭격 소리가 정말 많이 들렸어요.
가자는 캄캄한 암흑의 밤이 됐어요. 연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무섭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 빠뜨린 말이 있는데, 첫 번째 폭격 때 형이 찻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그게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23. 마흐무드 발라위 (1995 년생, 샤틀리 캠프)

번역: 이소정

가자에 대해 최고로 아름다운 단어들을 적어 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난을, 군인에 의한 포위를, 기근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가자 사람들이 아리시로 우르르 몰려가 그곳의 식량과 물품을 두 시간만에 쓸어 온 마당에요. 집집마다 고갈에 시달리는 모습을, 그들의 공포와 탈진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자에 대해 어떤 말을 하기를 바라시나요? 가자의 상황을 자각하게 된 시점부터 저는 그 안의 모든 것을 슬퍼했습니다. 특히나 가자의 아이들이, 그리고 심지어 어른과 청년, 여자와 소녀들도, 동물과 돌멩이와 나무까지도, 모두가 울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고 근사한 말을 떠올려 보려 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꿈을 꾸게 해주는 건 바다뿐입니다. 해변에 서면 사이프러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서 파리로 여행을 떠나고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지만 그 여행의 끝은 우리집, 난민 캠프 한가운데에 있는 내 방의 침대입니다. 가자의 현실로, 지저분한 시장, 넘쳐흐르는 오물, 손수레와 거기 실린 것, 그리고 숨막히는 악취로, 말할 수 없는 자들의 침묵으로 돌아옵니다.

시계를 봤는데 시곗바늘이 11 시 55 분을 가리키고 있으면 온몸이 떨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시계만이 저를 무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모든 것이, 심지어 파리마저도 저를 두렵게 합니다. 겁쟁이나 약골처럼 비춰질까 봐 누구에게도 이 두려움을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형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가장 큼니다. 파리가 형들 몸에 앉으면 그대로 파리가 형들을 죽일 것만 같아서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도망쳐 달아납니다. 제가 요즘 자꾸만 집밖으로 도망치는 건 그래서입니다. 파리가 주변에 너무 많아서요.

24. 마흐무드 투르크 (1994 년생, 잘라 대로)

번역: 민경

전쟁 전에 나는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 뒤로 내가 더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전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가자에는 어린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전쟁이 터진 날, 나는 동네에서 놀고 있다가 이웃 사람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봤다. 내가 무슨 일 이냐고 묻자 누군가 말했다. “이스라엘 군대가 동네 사람들 집을 곧 폭격할 거라고 경고했대.” 나는 부모님에게 알리기 위해 뛰어갔다. 우리는 1 분만에 서둘러 집에서 달려나왔다. 다른 건 다 두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만 챙겨 나왔다. 가자에서 금보다 더 비싼 게 가스레인지다.

나는 그때 우리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느꼈다.

우리는 할아버지 집으로 갔다.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정보부가 할아버지 집을 폭격할 거라고 전화를 걸어 말했다. 우리는 당장 뛰쳐나와 다른 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 집엔 다섯 가족이 모여 있었고, 내 이모들도 다 와 있었다. 사촌들과 나는 좋은 친구가 됐다. 우리는 밤새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지치고 무서웠고, 집에 가서 내 베개를 베고 내 침대에 누워 자고 싶었다.

사흘 뒤, 그들이 우리와 이웃한 집들을 폭격했다. 폭격이 끝나고, 우리 동네 사람들 모두 저희 집으로 돌아갔다. 나도 내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더이상 잠들 수 없었다.

여행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지 오래됐다. 캐나다에 사는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은 캐나다의 공원과 바다와 가게에서 가족과 찍은 모습을 자꾸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보낸다. 게다가 뒤로 지나가는 캐나다 여자애들도 보이는데… 내가 그런 걸 왜 봐야 하지? 날 약 올리는 건가? …나는 밤낮으로 캐나다를 꿈꾸기 시작했다. 연기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그래서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어쩌면 다 잘 풀릴지도 모른다고, 원하는 대로 배우가 돼 캐나다로 여행을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캐나다 사람이 되고, 캐나다 사람과 결혼하고, 캐나다 아이들을 키울 거라고. 캐나다에선 무슨 말을 쓰지?? 상관없다. 캐나다어를 배우면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신경도 안 쓴다. 캐나다에 사는 아무도 내가 아랍인이라는 걸 모를 테니까. 머릿도 완전 금발에 눈도 파란색이니까.

25. 마흐무드 아파나 (1995 년생, 사프타위 대로)

번역: 김진아

저를 겁쟁이라고 부르겠다면 그렇게 하세요... 전쟁 후로 저는 애들이 저한테 욕을 하거나 때려도 아예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냥 슬퍼하며 그 자리를 떠나 버려요. 전쟁 전의 저는 이렇지 않았어요. 날아가는 새도 저를 피해 다녔을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는 걸 본 후로, 우리 모두 죽고 말 거라고 느끼게 됐어요. 그저 죽음이 조금씩 지연되는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꼬맹이 너, 그보다는 마음 넓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100 살은 된 기분이 들었어요.

땅에서 벌어지던 전쟁은 끝났지만 제 머릿속에는 전쟁이 그대로 있어요. 저도 세계 다른 지역에 사는 애들처럼 살고 싶어요... 아니, 세계일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의 아이들처럼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촌들하고 온라인 채팅을 할 때 보면, 사촌들은 어린 시절이라는 것을 보내고 있고 절대 저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걸 말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겁이 나요. 그 애들 얘기를 잘 듣고 있는 척하고 거짓말을 하지요. 그 애들은 우리가 전쟁 중에 겪은 것을 겪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가족과 삼촌네, 할아버지네 식구들은 다들 아난 삼촌네 집으로 갔어요. 거기가 전쟁에서 먼 안전 구역이었거든요. 우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다음 날, 삼촌네 집 바로 옆 거리가 폭격됐고, 집 뒤의 담이 무너졌어요.

셋째 날에는 아난 삼촌이 아침으로 먹을 풀[파바 콩]과 팔라펠을 사러 나갔어요. 삼촌이 돌아와 문 앞에 차를 대고 내리려 하는데 로켓탄이 떨어졌어요. 삼촌은 상반신만 아스팔트 위로 고꾸라졌고, 나중에 구급차가 와 차에서 하반신을 빼야 했어요. 응급 요원들이 비닐에 상반신을 담고 삼촌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모두 울부짖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신에게 삼촌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 달라고 빌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스스로를 속이려 한 걸까요, 우리를 속이려 한 걸까요? 당연히 삼촌은 돌아오지 않았고, 무사히 돌아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26. 마흐무드 나젬 (1994 년생, 셰이흐 라드완)

번역: 김지수

가자의 도로가 그렇게 말끔해진 건 처음이었어요. 길에 종이 한 조각, 판지 하나 없었어요. 전기가 끊어진 바람에 사람들이 길에 있던 종이를 주워 빵을 굽는 데 썼거든요. 그날 엄마는 빵을 만들기가 귀찮다며 동네 오븐에서 빵을 가져오라고 날 심부름 보냈어요. 오븐 앞에 늘어선 줄이 가자에서부터 웨스트뱅크까지 이어졌어요. 사람들은 여덟 시간씩 줄을 서서 차레를 기다리고야 빵 반 봉지를 가져갈 수 있었지요.

몇 초 만에 동네에 팔레스타인 로켓 발사대가 설치됐고, 1 초도 안 돼서 이스라엘 항공기가 그것을 즉시 폭파시켰어요. 사람들은 사방으로 도망쳤고 앰블런스가 왔어요. 사람들은 마구 죽었고... 나머지는 다쳤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내게 “안전하다니 정말 다행이고 신께 감사하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아무튼 나는 빵 없는 채로 집에 갔고, 엄마는 화를 냈어요... 지금까지도 엄마는 왜 내가 그날 빈손으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27. 헤바 다우드 (1995 년생, 미나)

번역: 민경

다섯 살이었을 때, 한 번은 티베리아스에 간 적이 있었어... 천국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도시였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가 기사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약사 모스크에 진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로를 타면 안 된다고 했어. 난 그제야 깨달았어. 티베리아스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나는 여권국 근처의 리말 학교에 다니는데, 여권국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습격 받았던 곳이기도 해. 그 부처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학교로 뛰어와 숨었어. 다른 여자애들은 다 우는데 난 웃음이 나왔어. 그때 왜 웃음이 나왔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어.

집에 돌아가서 텔레비전을 켜 보니, 화면에는 우리 학교 주변의 건물들이 모두 붕괴되고 시체들이 즐비한 모습이 나왔어. 학교는 나왔어도 난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아 신에게 감사드렸어. 난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날이 없기를 바랄 뿐이야. 왜냐면 우리는 죽지 않고는 텔레비전에 나올 수 없으니까.

전쟁 후에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됐어. 눈만 봐도 뭘 원하는지 느낄 수 있게 됐지. 내 또래의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도 이해하기 시작했어. 난 더욱 용감해졌고, 분명히 말하는 법을 알게 됐고, 사람들을 더 신뢰하게 되었지. 그러니까 전쟁에도 나름의 이점이 있어. 믿겨져? 전쟁 후에 나는 더 강해지고 있고, 더 당당하게 미래로 나아가고 있어.

번역: 이여로

다섯 살 때, [이스라엘 도시] 티베리아스에 갔던 적이 있다... 천국처럼 아름다운 도시였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누군가 버스 기사에게 전화를 걸더니 예루살렘 길로 가지 말라고 했다. 샤론이 알약사 모스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티베리아스가 우리 땅이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여권부 근처에 있는 리말 학교에 다닌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공습을 당한 곳이다. 부서 사람들은 모두 학교로 도망쳐 왔다! 나를 제외한 모든 소녀가 울기 시작했다. 난 웃었다. 지금도 내가 왜 웃었는지 모른다.

집에 돌아가 TV 를 켜었을 때, 우리 학교 주변 건물들이 모두 무너진 걸 보았다. 시체들이 연이어 누워 있었다. TV 에 우리 학교도 보였지만 내가 나오는 건 보지 못했다. 신께 감사드렸다. 내가 TV 에 나오는 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TV 에 나온다는 건 죽었다는 거니까.

전쟁 이후에, 나는 사람들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와 내 또래의 애들이 알면 안 되는 것들도 알기 시작했다. 나는 용감해졌고 적절하게 말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는 커져 갔다. 이 전쟁에 유익한 게 있다면, 누가 믿을까? 전쟁 이후에 난 더 강해졌고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28. 위암 디에리 (1997 년생, 사브라)

번역: 우지안

제가 가자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바르셀로나 공원이예요. 전 거기를 일주일에 세 번씩 가곤 했어요. 하루 종일 웃고 친구들과 놀며 그네를 탔죠. 하지만 전쟁 중에 점령군이 불도저로 공원을 밀어 파괴했어요. 그 자리를 찾아갔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놀던 곳, 그네가 있던 자리, 친구들과 함께 터뜨렸던 웃음이 다 떠올랐어요.

저는 변호사가 돼 피해자가 된 사람들을 변호하고 싶어요... 다른 어디에서도 가자 제국에서보다 더 많은 피해자를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 생각에 가자는 100 개 국가와 150 만 명의 대통령들로 이루어진 곳이거든요.

탱크가 우리 집에 도착한 건 새벽 다섯 시였어요. 엄마는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고, 몇 초 만에 모든 게 거꾸로 뒤집혔죠. 우리 모두 소리를 질러 가며 손에 잡히는 대로 챙길 걸 챙겨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길로 뛰쳐나갔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학교 밖에 갈 곳이 없어.” 아, 그리고 학교, 학교라니. 우리 학교는 그 어떤 학교들보다 아름다워요! 우리는 100 명이 한 교실에서 자곤 했어요. 첫날 밤 저는 어떤 여자애랑 4 분의 1 미터 되는 공간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자리가 누구 차지인지를 두고요. 결국 둘 다 그 자리에서 잤는데 그 상태로 어떻게 잠이 든 건지 모르겠네요. 오래돼 내버려지고 잊힌 옷들의 산처럼 겹겹이 포개져서...

사흘이 지나고 우리는 동네로, 우리집으로 돌아갔지만, 그새 많은 게 달라져 있었어요. 동네는 예전 같지 않았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 혀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연극 코치님은 그게 가자에서는 정상이라고, 가자 사람 모두가 서로의 소문을 퍼뜨리고 흉을 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와 가자 사람이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 험담하는 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 반면 저는 제가 남 말 하기 좋아한다는 걸 온전한 정신으로 인정한다고요…

가끔 씹을 사람이 없을 때면 저 스스로를 홍보기도 해요…

29. 야스민 자루르 (1996 년생, 다라지)

번역: 정혜린

가자에서 우리의 미래는 모호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조용한 화산처럼... 우리는 맹렬한 바다 한가운데서 마치 선장 없는 배에 탄 것처럼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죠... 몸을 어디에 기대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나라에선 어린 시절이 신성하고, 아이들은 문젯거리나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자의 아이들은 잊히죠. 그림의 바깥에 존재합니다. 사회가 어린아이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니 가자에서 가장 불의를 느끼는 것도 가자의 어린이입니다. 세상은 마음대로 그들을 어른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아이로 만들었다가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마음이나 정신은 없고 오직 육체인 것처럼 대합니다.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거나 가게에서 일을 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놀고, 쉬고, 안전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세상의 아이들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가자에는 부드러움도 유년 시절도 없습니다. 소년들은 남자로 태어나고, 소녀들은 신부로 태어납니다.

전쟁 전에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훨씬 다정했어요. 예전처럼 저를 품에 안아 주신다면 좋겠습니
다. 신이시여, 아버지를 도와 주세요. 아버지는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전쟁 중 단 1 초만에
5,000 평방미터의 땅을 잃어버렸거든요. 60 년 된 그 밭에 이스라엘 군대가 로켓을 쏘고, 오렌지
들을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나도 그 로켓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
다. 우리가 창문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만약 아버지가 나를 땅바닥으로 던져 버리지 않았다면 유
산탄 파편들이 나를 덮쳤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라파 통로에 들렀어요. 이집트 국기 옆에 팔레스타인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
니다. 하지만 그 사이는 철조망으로 분리되어 있었죠. 저는 두 깃발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 철
조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다란 감옥의 경계였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어리석고 부당한
지요. 저는 모든 국경을 부수고, 인종과 종교의 모든 차이들을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
두가 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꿈은 작은 마을일지라도, 혹은 세상 끝 저 먼 섬일지라도
안전한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30. 야스민 아부아메르 (1996 년생, 슈자이야)

번역: 이소정

저는 형이상학(자연 뒤에 있는 것)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가자란 곳이야말로 자연의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자에 존재함으로써 제가 정말 많은 것을 얻었으니 저의 기술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슈자이야 캠프는 언제나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점령군은 가자를 침략하려 들 때마다 우리집을 지나쳐 갑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슈자이야가 공격 당하리라 생각하고 자신의 집을 두고 떠났습니다. 이런 경우엔 집을 두고 떠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집을 떠나라고 설득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알제리아에 있는 내 오빠, 미국에 있는 삼촌, 앙카라에 있는 삼촌, 세상 모두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빌었지만 아버지는 슈자이야를 떠나기를 거부하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사흘에 걸쳐 집을 샅샅이 훑었지만, 언제 떠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언니가 사는 더 안전한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지칠 때까지 말하고 나서야,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가면 내가 따라갈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 있었겠어요? 어머니는 머리를 써서 빵을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전쟁 중에 빵이 얼마나 귀한지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언니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살만, 우리가 빵을 두고 왔어. 당신이 가져다줘.’ 뒷에 걸려든 아버지가 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다시는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를 잠에서 깨운 건 거리를 화염에 휩싸이게 한 인탄이었습니다. 우리는 울기 시작했는데, 그건 눈에 들어간 인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푸념이 시작되었고, 차라리 그 폭탄이 우리에게 더 관대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 있자고 했지, 집보다 좋은 곳은 없다니까.’ 언니네 옆집과 사원이 폭탄으로 파괴되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되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지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당장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슈자이야에 있는 우리 옆집이 폭탄을 맞았고 앞집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언니네 집에 남았습니다. 가자 어디에 있든, 전쟁 중에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저는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매일 깨끗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걱정인 건 제가 로켓탄에 맞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제 몸이 산산조각이 날 텐데, 저는 한몸으로 죽고 싶습니다.

와, 가자와 가자의 꿈이라... 가자에 사는 우리의 꿈은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게 되었습니다.

31. 야스민 카트베흐 (1996 년생, 세이흐 라드완)

번역: 이동경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엄마와 형제 자매들과 러시아에 있었던 나는 항상 아빠를 걱정했어. 우리는 러시아를 떠나 가자로 돌아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족과 같이 겪고 싶었어. 전쟁이 끝나고 통행로가 열리자마자 가자로 돌아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 전쟁 이야기를 들으며 지내 왔어.

러시아에 있는 동안은 아빠를 걱정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전쟁 전에는 핸드폰이 가자에서 온 전화로 올리면 우린 기뻐하며 서로 달려가 받았어. 하지만 전쟁 중에는 가자에서 걸려 온 전화라면, 그게 아는 번호든 모르는 번호든 간에 우린 “신이여…” 하고 말하며 누가 받을지 서로 눈치만 살폈어.

전쟁이 끝나고, 내 안에 많은 것이 달라졌어. 난 사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 이 도시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삶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으며 나 자신 또한 그렇게 느껴졌어. 친구들도 달라졌고, 나이가 많고 더 성숙한 친구들을 새로 사귀게 되었어. 아빠 앞에서도 용감하고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했고, 누구와도 상대할 수 있게 됐지. 엄마와는 친구가 되어 자주 밤을 새며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

만약 내가 미래에 어른이 된다면 말이야-가자에서 어른이 되는 건 그 자체로 성취니까, 죽음이 늘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어서-난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 주는 사람이 되고 싶

어. 팔레스타인 애들은 노인으로 태어나는 것만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 여섯 살 된 아이가 가족을 돌보기도 하고.

한국어 대본 번역 참여자 (총 15 명)

「가자 모놀로그」 한국어 대본은 피다 지리스 Fida Jiryis 님이
아랍어(팔레스타인)에서 영어로 옮긴 대본을 중역한 것입니다.
「가자 모놀로그」의 한국어 번역을 허락한 [아슈타르 극장](#)에 감사 드립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기원하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어 대본 번역에 총 열다섯 분이 기획과 편집, 그리고 번역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자 (2023):

김지수, 김진아, 미래, 민경, 배소현,
안팍, 우지안, 유수, 이동경, 이소정,
이여로, 이예원, 전규연, 정혜린, 호영

CREDITS

This Korean text of “The Gaza Monologues” (2010)
was translated from Fida Jiryis’s English translation,
with permission from the Ashtar Theatre in Ramallah
and in solidarity with the Palestinian people.

FREE PALESTINE!

Korean Translation Team 2023:

Aanpaak, Sohyun Bae, DongKyung a.k.a. Ani,
e. yaewon, Ee Yeoro, Hoyoung, Gyuyeon Jeon,
Hearin Jeong, Jisoo Kim, Jinah Kim, Sojeong
Lee, mirae, Min Kyung, Jiann Woo, Yoosoo



낭독회 및 공연을 기획하실 분은 아슈타르 극장의 [관련 고지](#)를 확인하시고
극장의 요청대로 저작권 이용료를 대신해 [이곳](#)을 후원해 주세요.

|

한국 팔레스타인 평화 연대 (<https://pal.or.kr/wp/> twitter: @pps_kr IG: @pps_kor)
활동 소식에 관심 가져 주시고 BDS 운동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BDS 실천 가이드북: 이스라엘에 대한 문화 보이콧 길찾기』
서울인권영화제 x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리시올 발행, 2020 [배포용 PDF](#)